

# 커리어디자인 8주차 과제

세가지 다른 행복한 삶 (감사장 작성)

201911019 최현민

사랑하는 어머니께

99년도 스물셋의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고 어느덧 저는 그때의 어머니 나이보다 많은 스물넷이에요. 제가 그 나이를 지나보니 스물셋은 아직 많이 어린 나이고 생애 있어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

보통 본인과 커리어를 위해 쓰는 시간에 어머니께서는 그 시간을 저희를 위해 써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 주셨어요.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맘 편히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여서 항상 든든했고 제 게 엄마는 항상 최고였어요. 누구보다 저희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더할나위없이 행복했고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여서 항상 감사했어요.

앞으로 제 앞가림 잘하면서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. 그리고 부모님 뵈러 더 자주 내려가서 효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사랑해요. 엄마

최현민올림